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이정선*· 안진호**

목 차

요약	2.4.3 스페인 자연장 현황과 운영
1. 서론	2.4.4 스웨덴 자연장 현황과 운영
2. 본론	3. 결론
2.1. 선행연구 검토	3.1. 사후 자연 회귀 관념의 지향
2.2. 자연장 도입의 배경	3.2. 추모 서비스의 패러다임 전환
2.3. 국내 공설 자연장 운영 실태	3.3. 시사점
2.4. 해외 사례	참고문헌
2.4.1 독일 자연장 현황과 운영	Abstract
2.4.2 스위스 자연장 현황과 운영	

요 약

장사 방법의 선택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필요한 결단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판단기준으로 삼는다. 우리의 장례방법에는 자연이 아닌 조상숭배 문화와 종교가 지배적이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 자연을 수단화하여 이용했을 뿐 자연에 대한 배려나 자연과의 공생과 같은 자연장의 방법이 등장한 건 최근이다. 최근 자연장의 국민 선호도가 높은 것은 오늘날의 강력한 시대정신, 자연 친화적 가치이다.

2021년 통계 기준, 우리나라 전국 화장률 92%를 상회 했으며, 불과 20년 전 화장률 20% 미만에 견주면 우리의 장사방법은 급변했다. 9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화장장려 운동과 정부시책이 체계적으로 전개 되면서 봉안시설이 우리 곁에 자리 잡았다. 하지만 이 또한 국토훼손이라는 비난의 굴레를 면하지 못하던 중, 2008년 자연장이라는 장법이 제도권에 도입되었고, 약 15년이 흘렀지만 자연장 활성화는 예상보다 더디다. 발전 정체의 원인 중 하나는 “(한번 숲으로 돌아가면) 숲에 영원히 잠든다” 라는 자연장의 기본 정신을 잊고, 마치 묘지의 분묘처럼 생각(改葬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연장의 도입배경과 현재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자연장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추모 공간으로 거듭기 위한 추모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자연장의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표제어: 자연장, 수목장(림), 추모 서비스, 장사 방법, 장사제도

접수일(2023년 05월 15일), 수정일(2023년 08월 23일), 게재확정일 (2023년 08월 24일)

* 제1저자, 을지대학교 바이오융합대학 장례지도학과 조교수, jslee@eulji.ac.kr

** 교신저자, 아이디어노랩(IDinolab) 대표, pibuchi@gmail.com

1. 서론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 용어가 시작된 영국에서는 “Natural Burial”은 “Natural Death” 운동과 함께 시작된 친환경 매장을 의미하고 있다.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국토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자연환경 보호에 일조하겠다는 명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장사시설로 본래의 취지와 명분에 맞는 조성과 추모의 방법은 국가와 지역에 따라 기후와 문화, 식생이 다른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에는 8개소의 공공 자연장 추모공원(국유 추모시설 및 산림조합 운영시설 포함)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없었던 장법인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이 법률로 제도화된지 15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장사문화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화장장 등을 건립하면서 같이 마련한 잔디 및 수목형 등 공설 자연장지의 수적인 증가가 꽤 눈에 띈다. 이에 비해 공공 수목장림의 증가는 한참 뒤떨어져 있다. 외형적 양적인 발전이 더딘 것은 자연장지와 수목장림을 보통의 봉안시설이나 묘지 등과 같은 것으로 알고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 국민의 인식 부족을 탓할 수 있다. 물론 이 차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한 관계와의 노력 부족도 한몫했다고 보인다. “숲의 자연 생태적인 건강성 저하”와 밖으로부터(대체로 장묘 관련 쪽)의 “숲에 설치한 미니어처 공동묘지”라는 지적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가 자연장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한 것이라고 보면, 후자는 사용자와 관리자가 지난날 분묘 조성 장묘관행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이 같은 자연장 발전 정체성의 가장 큰 원인이 “(한번 숲으로 돌아가면) 숲에 영원히 잠든다”라는 수목장림의 기본 정신을 잊고, 마치 묘지의 분묘

처럼 생각(改葬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장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추모 공간으로 거듭기 위해 서비스 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국내외 우수 사례와 고품격이면서도 친환경적인 선진국 자연장의 조성사례를 통해 시사점과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2. 본론

2.1. 선행연구 검토

먼저, 『수목장림 조성 연구』(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Association, 2005)는 수목장림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수목장림 조성과 그에 따른 제반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하였다. 수목장림에 대한 일반인 인식과 기대 및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는 수목장림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수목장림의 조성 형태 및 관리방식 등 한국형 수목장림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원형 자연장지 공간 구성 모델 개발』(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 2017) 연구는 자연장지의 다양한 입지 지형과 수요와 조성 여건 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여 표준화된 모델을 개발하며 조성 방법을 제시하였으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원(도시, 자연) 같은 장소에 적용 가능한 개발유형과 자연장 사례를 발굴하여 미래지향적 공간 구성의 접근방법을 적용 제시하였다.

「독일의 장사법 체계에서 樹木葬」(Kang, 2006)은 한국과 독일의 장사법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장사법의 발전을 도모한 연구 논문으로 한국 장사법에 대한 문제제기와 수목장의 정의하고 있다. 독일 기본법을 중심으로 장사의 기본원리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장사법과 뮌스터 시 장사조례의 기본 구조, 내용, 특징 등을 검토한 후 미래형 분묘로서

수목장을 권장하고, 장사법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수목장지 유형별 만족도 조사 분석에 따른 활성화 방안 제안’ (Kwon et al, 2014)은 수목장의 활성화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로 수목장지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자연산림에 조성하는 수목장립의 확대가 중점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특히 자연장지의 이용가격과 공신력에 대한 불만, 추모목의 생육환경에 대한 개선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수목장립 구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Kim, 2018)에서는 수목장립을 조성하는데 관련된 법제를 검토하고,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하였다. 수목장립의 법 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는 수목장립의 조성 주체의 확대, 수목장립의 표지를 나무에 매다는 방식만이 아닌 표지 제한의 완화, 수목장립의 운영 기간의 명확화 필요성, 수목장립 조성 시 편의시설의 다양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계와 국내법에의 시사점’ (Lee, 2022) 논문에서는 장사법 관련 규정의 이해와 적용에 있어서 이해 당사자의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법이론적 관점에서 장사법 체계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의 베를린 주의 장례법과 묘지법에 대한 심층적인 소개와 검토를 기초로 장사법 개정이 필요한 우리에게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2.2. 자연장 도입의 배경

1990년대 후반 NGO 들의 “화장 유언 남기기” 운동과 ‘공원묘지 대량 폭우 피해’, ‘재벌의 화장’, ‘사회지도층의 화장 서약’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 요소들이 더해져 우리나라 화장률이 급속도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화장을 멀리하던 국민 의식이 급속하게 화장 수용 쪽으로 전환되었다. 화장장

부족 문제와 더불어 납골시설 수요와 공급이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그리고 이때부터 납골묘와 납골당으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가 본격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같은 시기 일본 사례를 들어 자연장(自然葬)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본에서 강이나 바다에 산골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부른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것 같다.

1999년 말 국회를 통과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 법률안은 2000년 1월 12일 공포되어 2001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매장 억제, 화장 장려’를 조장하는 법률이 본격 시행 적용되었다. 하지만, 법 조문 어디에도 자연장 등의 관련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서울시의 경우, 2003년 1월 10일 자로 시행된 조례를 통해 ‘산골’을 ‘화장한 유골을 강 또는 산 등에 뿌려 영구히 장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2003년 5월 1일부터는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제1묘지에 ‘추모의 숲’이라고 명명한 산골장소를 설치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제도화된 산골이고, 공식적인 산골 장소(골)였다.

장사법에 시행되던 21세기 초반, 우리 입학 및 산림업계를 중심으로 스위스에서 시작하여 독일 등에서 확산하던 ‘수목장’에 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이다. 이후 2005년 전후에는 가히 수목장 열풍이 불었다고 할 정도로 세간의 시선을 끌었다. 국민일보의 연속 기획 취재 보도, 수목장 단체 등의 집중적인 홍보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편,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경기도, 경북도, 광주 시, 인천시 등 자치단체에서 앞다투어 수목장을 조성하겠다고 나섰다. 2006년 2월 14일에는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시민운동 단체가 발족했다. 제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대부분 언론에서 여러 차례 수목장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고, 그 와중에 불법 수목장 사업자까지 여럿 등장

하여 국민의 피해까지 발생했다. 2006년 하반기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는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전국의 불법 수목장립 관리 감독 강화와 단속에 관한 뉴스가 나와 2008년까지 이어졌다.

2007년 장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내용상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골분을 ‘뿌리는’ 것이 삭제되어 버린 것이다. 개정 법률에 우리 역사

자연장지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서울은 파주 용머리 묘지에 수목형과 정원형, 잔디형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서는 종합자연장형으로 조성하고, 인천(인천가족공원)은 수목장립, 광주(영락공원)은 잔디·정원형, 수원(연화장)은 정원형으로 꾸미기로 한 것이다.

또한 2007년 5월 28일 산림청에서는 20여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도 양평군 일원의 국유림 10ha

Tab. 2-1 Comparative table of ordinances of each local government related to tree-type natural burial sites

지역별	최초 사용기간	연장기간			총 사용기간	유골함사용		안장방법	골분 반환
		1차	2차	3층		사용	불가		
서울시	40년	불가	-	-	40년		○	흙과 혼합	불가
인천시	30년(1)	불가	-	-	3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울산시	30년	불가	-	-	30년		○	흙과 혼합	불가
대전시	30년	불가	-	-	30년	○		용기 혹은 흙과	불가
제주시	40년	불가	-	-	40년	○		용기 혹은 흙과	불가
세종시	30년(2)	불가	-	-	30년	○		용기 혹은 흙과	불가
용인시	30년	△(3)			30년	규정 X(3)		규정 x	불가
공주시	30년	15년	15년	-	6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고창군	40년	불가	-	-	4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진도군	15년	15년	15년	15년	6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구례군	40년	불가	-	-	4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의성군	30년	불가	-	-	3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무주군	45년	불가	-	-	45년	○규 칙		규정 x	규정 x
함안군	30년	불가	-	-	30년		○	흙과 혼합	불가
안성시	30년	15년	-	-	45년	○		용기 혹은 흙과	불가
보은군	30년	30년	-	-	60년	○		용기 혹은 흙과	불가
양구군	15년	15년	-	-	30년	○		용기 혹은 흙과	규정 x

* 참고사항

(1) 가족정원장은 90년

(2) 잔디형 장지 중 가족장지(30년)와 종중장지(15년)는 연장 가능

(3) 합장의 경우 연장 가능. 부부장지(2구): 60년/ 가족장지(4구): 60년/ 가족장지(6구): 80년

용인시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용인시의 여러 수목장 사이트에 따르면 유골함을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음.

(Source: Eulji University Industry Cooperation Group, 2022)

속에 오랜 연원을 가진 산골은 제도화되지 못하였고, 외국에서 도입된 자연장과 수목장립은 제도화되었다. 정부의 입법 준비과정에서 분명하게 포함되어 있었던 유골을 뿌리는 것이 법률에 포함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도 보건복지부에서는 발 빠르게 4개소의

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목장립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경기도 등에서 추진하던 수목장립이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같은 해 12월 24일, 보건복지부에서는 자연장지, 수목장립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은 「장사 등에 관

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들어갔고, 이 시기에 개정 관련 공청회도 열렸다. 세부 규정 제정이 완료된 후, 2008년 5월 26일 자연장지, 수목장립을 제도화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이 역사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같은 해 12월 31일, 산림청에서는 반대하던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본격적으로 수목장립 조성에 들어갔던 우리나라 최초의 양평 국유 수목장립을 위탁 받을 수탁자 공개모집에 나섰다. 공모한 수탁자는 산림조합중앙회로 결정되었고, 이듬해인 2009년 ‘하늘숲추모원’이라는 이름으로 첫 국유 자연장 추모공원이 개원하였고, 2018년 9월에는 장성군 산림조합에서 공공수목장립 '자연숲추모공원'을 개장하였고(Jangseong Gu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Website Jan.5.2023), 2021년 5월에는 경주시 산림조합에서 ‘경주하늘수목장립’을 개장했다(Gyeongju-si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Oct.20.2022). 그리고 2022년 11월에는 우리나라 2번째 국립수목장립인 충남 보령시 ‘기억의 숲’이 문을 열었다.

2.3. 국내 공설 자연장 운영 실태

수목장립 발전 정책의 가장 큰 원인이 “(한번 숲으로 돌아가면) 숲에 영원히 잠든다”라는 수목장립의 기본 정신을 잊고, 마치 묘지의 분묘처럼 생각(改葬을 인정)한 데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다.

그렇다면 지자체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다음 <Tab. 2-1>은 수목형 자연장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지자체의 조례에서 사용기간, 안장 방법, 골분 반환(개장) 가능 여부에 관한 규정을 모은 것이다.

대체로 사용기간은 3~40년에 연장 불가인 경우가 많다. 중요한 사실은 한번 안장된 골분 반환 즉, 자연장지의 개장을 “불가”로 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공공 수목장립의 사용기간은 대체로 긴 편이다. 더구나 모두 개장 후 골분 반출을 인정하고 있다. 수목장립이 아직은 전통적인 분묘 매장 시설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고 보인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장기간에 걸친 경험을 모아보면, 화장한 골분을 그대로 땅에 묻으면 썩으면 한 달 이내 토화(土化, 흙물이 배여 흠처럼 보이는 것)하여 흙과 구별이 쉽지 않다고 한다. 생분해성 용기를 사용하여 땅속에 안치한다면 용기 분해 기간만큼 토화 시간이 지연될 것이다. 어느 경우든 토질이나 온도, 습도 그리고 흙 속 생물 등에 따른 골분의 변화 분해에 대한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 전에는 땅속의 변화를 제대로 알 수 없다 (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 2017).

장사법 제2조(정의) 제3호에서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고 분명히 해두고 있다. 여기서 유골이 아닌 골분이라고 명시한 이유는 수목장립의 도입 취지인 “매장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한 것이고, 자연장지와 수목장립에 유골이 아닌 골분을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안치하여 조기에 분해, 자연 환원을 기대한 것이었다. 사람의 흔적이 한번 자연의 흙 속으로 온전히 돌아간 다음 다시 회귀(개장)하는 건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수목장립의 묘지화를 방지하고 숲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목장립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법령에서 수목장립 내에는 사실상 아무것도 두지 못하게 되어 있다. ‘금지행위’로 명시해두고도 이의 집행을 멈칫거리거나 외면한다면 굳이 수목장립을 따로 둘 이유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4. 해외 사례조사

2.4.1 독일 자연장(수목장립) 현황과 운영

인구 2만여 명의 오랜 온천 도시 비스바덴은 프랑크푸르트, 다름슈타트, 마인츠 등과 함께 인구 580만 명의 프랑크푸르트라인마인 광역도시권을 이루고 있다. 비스바덴에는 21개소의 묘지가 있으며, 총면적은 약 90헥타르에 이른다. 7개소의 유대인 묘지까지 포함하여 녹지관리부서의 직원들이 관리한다(Terra-Levis website Jan.5.2023).

2013년 9월, 프라우엔슈타인(Frauensteiner) 지구에 있는 비스바덴 사유 숲 10ha 안에 540주의 나무를 선정하여 Terra Levis 수목장립을 개설하였다. 근래 독일에서 늘어나고 있는 숲속 나무 아래 자연에 유골항아리를 안장하는 수목장립을 묘지 매장의 대안으로 이용하기로 한 것이다(Josephsruh website Jan.5.2023).

입구의 소박한 목조 건물(대피소 정도로 활용될 듯한), 자연 그대로의 참배로, 목제 안내판과 벤치, 추모공간 외에는 인공구조물은 극도로 절제되어 있다. 숲은 크고 작은 나무들이 혼합림을 이루고 있었고, 이기부터 다양한 저층 식생이 잘 보존되고 있다.

좋은 수목장립 환경과 더불어 우리나라 수목장립과 좀 다른 사용료 체계 때문인데, 가족 나무에 친구(Freundschafts)도 같이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1~6구와 7~12구로 등급을 나눈 것과 더불어 유골의 추가 안장 비용을 받는 것도 눈에 띈다.

볼페그는 독일 남부 바덴-뷔르템베르크에 있는 인구 약 3,500여 명의 작은 자치단체(Gemeinde)이다. 작은 자치단체의 (공공) 수목장립이지만, Josephsruh 수목장립은 사람들에게 숲에 묻힐 기회를 제공한다(Josephsruh Website Jan.5. 2023).

고인의 골분은 생분해성 항아리를 이용하여 나무 뿌리 부근이나 천연 비오톱에 묻힐 수도 있다. 숲은 자연 그대로 남아 있고, 무덤은 관리되지 않으며, 자

연은 다양한 계절의 선물로 무덤을 장식한다(Mainz website Jan.5. 2023).

시각적으로 수목장립은 기존의 숲과 거의 다르지 않다. 숲은 자연 그대로 보존되며 임업 작업은 최소한으로 유지된다. 수목장립은 울타리가 없지만, 안내판을 통해 수목장립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대한 손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요망을 숲 무덤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안식 장소는 나무 아래에 배치되며, 경로도 기념물도 없으며, 무덤이 있는 나무에는 이름표만 붙일 수 있다. 야외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추모공간이 있고, 생분해성 항아리만 사용할 수 있어 자연적 특성을 보완한다.

2.4.2. 스위스 자연장 현황과 운영

스위스 취리히에는 13세기부터 전해지는 위티콘 교회 묘지(Kirchhof Witikon)부터 20세기에 들어서 조성된 여러 묘지까지 총 19개소 시립묘지가 있다.

그중에서 황겔베르크와 라임바흐(Leimbach) 묘지에는 수목장립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식적으로는 Wald für Aschenbeisetzungen(골분 매장 숲)이라고 한다.

황겔베르크 묘지는 1948년 57,290m² 묘지가 도시가 성장하는 지역의 오래된 교회 묘지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리고 2003년 북서쪽 묘지와 접한 숲에 수목장립을 개설하였다. 선택된 산림 지역은 수종 및 나무 수준 면에서 다양하며, 숲의 한 부분이 황겔베르크 묘지와 접해 있다. 울창한 숲이 우거져 있으며, 대체로 경사가 없이 평평한 편이다. 수목장립을 이용하는 사람은 묘지의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stadt-zuerich website Jan.5.2023).

라임바흐 묘지는 취리히시 남쪽에 있는 묘지로 Leimbach 지역의 외곽에 있다. 1972년에 문을 연, 취리히에서 가장 최신 묘지이다. 1.2ha의 면적을 지닌 수목장립은 임도와 산림 산책로 끝자락 사이에

있는 지역으로 라임바흐 묘지와 연결하며, 큰 주차장이 있다. 나무가 우거진 2~3개의 작은 숲길을 지나가며, 숲은 다양성 나무로 구성되어 있어 숲의 경관은 매우 좋으며, 나무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2.4.3. 스페인 자연장 현황과 운영

스페인의 2005년도 화장률은 19.38%에서 2019년 44.54%로 급상승 중이다. 특히 까탈루냐(Catalunya) 지역의 중심도시 바르셀로나의 화장률은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바르셀로나 시립 화장장 2개소 및 묘지 9개소와 장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바르셀로나 묘지 공사(C.B.S.A)에서는 화장 유골을 수용할 다음과 같이 다양한 수단 및 시설을 개발 보급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콜세호라 묘지(El cementiri de Collserola)는 1960년대 말 문주의 묘지의 장사시설이 거의 다 차게 되었지만 확장할 수가 없었다. 바르셀로나시는 Collserola 산지와 바다로 둘러싸인 한계로 인해, 1972년 6월 27일, 새로운 묘지는 Collserola 산기슭 숲 180헥타르를 이용하여 설치 개장하였다(Barcelona Cemetery Public Corporation Website).

Collserola 묘지는 지중해 연안 묘지의 특징인, 대체로 5단 높이 벽감묘(nxols) 3~4블록을 대각선으로 배열한 묘지이다.

이 묘지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풍부한 식생이며, 묘지는 18개의 구역으로 구획되어 있고, 현대 묘지의 모범을 보이고 있으며, 자동차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골분숲은 사용자가 Collserola 묘지의 풍부한 녹음을 활용하여 평화롭고 평온한 환경의 숲속에 무료로 유골을 뿌릴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또한 이 숲의 나무뿌리에 향아리를 묻을 수도 있다. 원한다면 숲의 입구 중의 한 곳에 있는 청동 조형물이

부착된 자연석 “추모 벽(Mur Memorial)”에 고인의 이름을 남길 수도 있으며, 표지들이 다 채워지면 조각 세트가 완성된다.



Fig. 2-1 Colsehora Cemetery - composed of niche tombs unique to the Mediterranean

침묵의 숲은 2017년부터, Collserola 묘지에서는 생분해성 향아리에 화장 유골을 담아 매장하기 위한 새로운 자연 공간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침묵의 숲(El Bosque del Silencio)으로 이름 지은 이 환경은 약 2,000㎡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 화장된 고인이 묘지에 편안하게 안식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유골과 그 향아리가 환경에 미치는 오염 영향을 최소화한다.



Fig. 2-2 Sign of the joint deceased at the entrance of the Bone Mound Forest (a sculpture made of natural stone and bronze)

2.4.4. 스웨덴 자연장 현황 및 운영

스톡홀름시에는 11개의 공공 묘지와 13개의 장례 체플이 있다. (2022년 기준) 그리고 스톡홀름에

서는 사망자 10명 중 9명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화장은 시내 2곳의 화장장 Röksta krematorium 또는 Enskade Skogskyrkogården에서 치러진다. 화장이 끝난 유골은 공공 묘지의 봉안묘 또는 미네스룬드 등에 안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바다 등 자연에 산골도 허용된다.

숲 묘지는 102헥타르의 면적에 약 10만 기의 매장 봉안 등 장지가 있으며, 화장장 및 5개소의 장례 채플 및 야외 의식 공간이 있다. 정문 우측 언덕에 위치한 미네스룬드는 1961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1994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으로 유명한 묘지이며,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곳을 다녀오고 있다.

Minneslund는 묘지 내에 화장한 유골을 정중하게 익명으로 매장하거나 뿌릴 수 있도록 특별히 기획 조성된 장소이다. 이곳에서는 대체로 유족 등의 입회 없이 관리자들이 안장하기 때문에 유골을 어디에 두거나 뿌렸는지 유족들이 알지 못한다.

<Fig 2-2>와 같이 대부분의 스웨덴 묘지 미네스룬드는 추모조형물(때로는 아주 유명한 작가의 조각품), 현화 또는 양초 점등 등 추모할 수 있는 (때로는 水) 공간, 그리고 잘 가꾸어진 수목으로 둘러싸인 안장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모든 것을 구비하고 설치된 미네스룬드에서는 향아리(생분해성 재료로 만들어진)가 그대로 땅속에 안장된다. 이에 비해 자연의 토지로 이루어진 숲(미네스룬드)에서는 향아리 속에 골분을 비워 숲에 뿌리게 된다. Minneslund는 익명의 집단 무덤이어서 무엇보다도 고인이나 유족 등이 개별 무덤을 가지지 않기를 사람들의 소망을 충족시켜준다. 동시에 개별적으로 장례를 치러야 하는 장례 부담에서 해방되기도 한다(Stockholm City Website Jan.7. 2023).

3. 결론

3.1. 사후 자연 회귀 관념의 지향(志向)

해외 사례를 통해 내용을 몇 가지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름이나 형식이 어떻든 자연장림은 사후 “온전히 숲으로 돌아간다” 라는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런 정신을 가장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이 수목장림에 안장(치)한 후 改葬을 할 수 없거나 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인데, 이것이 묘지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수목장림으로 이용된 숲의 생태적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목장을 이용하면서도 숲은 자연 그대로 유지하기 위하여 간벌·하부식생 정비 같은 임업 작업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셋째, 추모목 주변에 안치한다기보다는 숲에 안치한다는 개념이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물론 독일의 수목장림이 추모목을 중심으로 안치하고 있지만, 추모목 선정 방식은 우리와 상당히 다르다. 그런데 다른 나라를 살펴보면, 숲속 나무뿐만 아니라 바위·그루터기 등과 같은 다양한 숲속 요소들을 이용하여 안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부 모뉴먼트를 허용하면서도 자연적인 산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3.2. 추모 서비스 문화의 전환

오늘날 혈연에 기반을 둔 연대성은 점차 약해지고 있다. 자연장지 시설은 혈연 조상만이 아닌 다른 사람의 죽음과도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죽음장소의 의미가 신성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장사시설은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이용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명사들의 묘역이 테마 공간으로 주목받도록 조성하거나 지역의 유래나 민담 등 공동체와 관련된 문화적 콘텐츠를 들 수 있다. 역사나 스토리가 깃들여 있다고 생각되면 지역주민과 이용자 모두가 공존하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3.3. 시사점

자연장은 인간이 자연에서 와서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이며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도 가능한 인위성을 배제한다는 철학을 장묘 방식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수목장은 고인을 품위있게 추모하는 장례법이다. 식생을 매개로 하며 그중에서도 나무를 주로 매개로 하여 이루어진다. 나무를 통하여 고인을 상징하는 추모의 대상을 갖추게 되고, 이는 고인이 묻힌 곳을 찾고 추모하고 싶어하는 후손들의 바람을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나무는 오랜 수명을 누리면서 거대하게 자라나는 나무는 고인에 대한 영원성을 부여하고 싶어하는 유족들의 희망을 충족시켜 준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자연장은 고인을 뜻깊게 추모할 수 있는 장법이다. 자연장에 담긴 공존의 정신과 의미 있는 마무리를 위한 배려의 가치를 담는 장소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다.

이전의 ‘묘지’는 산자의 땅과 죽은자의 땅이 서로 완전히 대립된 공간으로 나누어진 경계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고, 묘지는 무섭고 두려운 곳, 삶과 동떨어진 죽음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자연장은 다르다. 후손들이 가볍고 긍정적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연에 녹아 있을 때 찾아오는 이들에게도 즐거운 장소가 된다. 향후에는 국민들의 자연장 인식과 선호도 조사를 위해 문항개발과 실질적 측정연구가 필요하겠다.

References

- [1] Barcelona Cemetery Public Corporation [Website], (2023. Jan. 5).<http://www.cbsa.es> (스페인 바르셀로나 묘지 공사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5.). URL: <http://www.cbsa.es>)
- [2] Eulji University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Group, (2022). A Study on the Mid- to Long-Term Development of National Tree Burial. (을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국유수목장립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 [3] Gyeongju-si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Website]. (2022. Oct. 20). <http://member.nfcf.or.kr/forest/> (경주시 산림조합 홈페이지[웹사이트]. (2022.10.20.). URL: <http://member.nfcf.or.kr/forest/>)
- [4] Jangseong-gun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Website], (2023. Jan. 5). <http://member.nfcf.or.kr/forest/> (장성군 산림조합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5.). URL: <http://member.nfcf.or.kr/forest/>)
- [5] Josephsruh [Website].(2023. Jan.5). <https://www.josephsruh.de> (독일 볼페그 요세프스루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5.). URL: <https://www.josephsruh.de>)
- [6] Kwon, B., Woo, J., Park, W., and Byun, W. (2014). A Activation Plan Suggestion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atisfaction among the Types of Tree Burial Sites. (권병석, 우재욱, 박원경.(2014). 수목장지 유형별 만족도 조사 분석에

- 따른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산림과학회지*, 제103권, 제2호, pp. 287~298).
- [7] Kang, K. (2006), Tree urn graves in the German burial law system, *Korean Comparative Public Law Association*, 7(2), pp. 489-518. (강기홍. (2006), 독일 장사법 체계에서 수목장, *공법학연구*, 7(2), pp. 489-518).
- [8] Kim, M. (2018), A Study of the Laws and Regulations, and Its Improvements regarding the Construction of the Forest for Tree Burial, *Kyung Hee Law Journal*, 53(3), pp. 415-448. (김민규. (2018), 수목장립 조성에 관한 법제와 그 개선방안, *경희법학*, 53(3), pp. 415-448).
- [9] Korea Funeral Culture & Policy Institute (2017), Development of a park-type natural burial site space composition mode. (한국장례문화진흥원, (2017). 공원형 자연장지 공간 구성 모델 개발 연구).
- [10] Lee, J. (2022), Funeral Services System in German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Law, *Hanyang Law Review*, 39(1), pp. 161-186 (이종덕 (2022), 독일의 장사 관련 법체제와 국내 법에의 시사점, *한양법학논총*, 39(1), pp. 161-186).
- [11] Mainz [website], (2023. 1.5).
<https://www.mainz.de/microsite/wb/bestattung/grabarten/>
(독일 마인츠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5.). URL:<https://www.mainz.de/microsite/wb/bestattung/grabarten/>)
- [12]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s Association, (2005). Study on Tree Plantation. (산림조합중앙회, (2005) 수목장립 조성 연구).
- [13] Stadt-zuerich [website], (2023. Jan. 11).
<https://www.stadt-zuerich.ch>
(스위스 취리히 묘지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11.). URL:<https://www.stadt-zuerich.ch>)
- [14] Stockholm City [Website], (2023. Jan.7).
<https://begravning.stockholm/>
(스웨덴 스톡홀름시 홈페이지 [웹사이트]. (2023.1.7.). URL:
<https://begravning.stockholm/>)
- [15] Terra-Levis [website], (2023. Jan.5).
<https://www.terra-levis.de/>
(독일 비스바덴 및 수목장립 홈페이지[웹사이트]. (2023.1.5.). URL:
<https://www.terra-levis.d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ervice for the Revitalization of Natural Burial

Lee, Jeung-Sun* · Ahn, Jin-Ho**

ABSTRACT

The choice of business method is a necessary decision at the last moment of life, and to this end, we use several criteria. Our funeral methods were dominated by ancestral worship culture and religion, not nature. It is only recently that nature was used as a means from a human perspective, but natural field methods such as consideration for nature and symbiosis with nature have emerged. The recent high public preference for natural fields is today's strong zeitgeist and nature-friendly values.

Based on statistics in 2021, Korea's national cremation rate exceeded 92%, and compared to less than 20% of the cremation rate just 20 years ago, our business method has changed rapidly. As the cremation promotion movement and government policies, which began in the early 90s, were systematically developed, the enshrinement facility was established next to us. However, while this was also subject to criticism of national damage, the Jang Act called natural field was introduced into the system in 2008, and about 15 years have passed, but the revitalization of natural field is slower than expected. One of the reasons for the stagnation of development is to forget the basic spirit of the natural field (once you return to the forest), and to think like a graveyard grave. According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background of the introduction and current operation of natural fields and present development measures to improve memorial services to make natural fields loved by the people.

Keywords: Natural burial, Tree Burial Site, memorial service, burial method, burial system

* First Author,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Mortuary Science, College of Bio Convergence, Eulji University, jslee@eulji.ac.kr

** Corresponding Author, President, IDInnolab, pibuchi@gmail.com

	<p>Lee, JeungSun(jslee@eulji.ac.kr)</p> <p>Lee, Jeungsun is an assistant professor of Mortuary Science Department at Eulji University in Seongnam. She received her Ph.D. in Service Management at Kookmin University in Seoul, Korea. She holds a Master's and Bachelor's degree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Texas A&M University at San Antonio, Texas. Her research interests include areas in Service Philosophy, Service Innovation, as well as Funeral Service and Mortuary Science.</p>
	<p>Ahn, JjnHo (pibuchi@gmail.com)</p> <p>Ahn, Jinho is is an adjunct professor at Kookmin University and the CEO of IDinolab Co., Ltd. (www.idinnolab.co.kr), a company specializing in experience data. He holds a bachelor's degree in industrial design, a master's degree in IT consulting, and a doctorate in corporate management. His main fields of research are consulting in the field of UX and service design, and the collection, processing, and utilization of experience data on human behavior and attitude.</p>